

석정스님 佛母60년 결산

세종문화회관 20~23일·부산 국제문화회관 4월 3~6일

첫 개인전... '한국의 불화시리즈' 기금마련 탱화등 280여점 엄선 '석정서화집' 도 발간

◇한국불교계의 거물 석정스님이 佛母 60년을 결산하는 개인전을 연다. 스님의 작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획인 이번 '석정'에 전시된 '석기도 나뭇잎화'.

평생을 탱화와 불화에 정진해 온 한국불교계의 거물 석정스님(71)이 60년 불교(佛母) 인생을 결산하는 '석정전(石正展)'을 갖는다.

오는 20~23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4월 3~6일 부산 국제문화회관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석정전'에는 스님이 평생 소장해 온 불화와 선묵화 등 280여점이 전시된다.

그동안 수많은 탱화와 불화를 그리고 각 불사(佛事)의 서화전에도 서슴없이 화폭을 펼쳐 온 스님이지만 좀처럼 개인전을 안간 스님이 70평생 처음 개인전을 열게 된 계기는 스님이 총재로 있는 '성보문화재단연구원'의 <한국의 불화> 시리즈 간행 제작발사 기금마련을 위해서다.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1천 5백여 사찰에 소재한 5천여점의 불화를 조사 촬영하고 도록으로 만드는 이 작업에는 총 40여권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석정스님

불교계뿐 아니라 국가적 문화사업이 될 이번 불화조사는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대불사라 석정스님이 기금마련에 앞장서기 위해 소장작품 일체를 연구원에 기증한 것.

이번 전시회에는 부처님과 각 보살들의 탱화뿐 아니라 달마조상, 난, 연꽃 등 선묵화, 글씨 등 스님이 평생 그려 온 다양한 주제의 그림, 글씨가

전시대 '불화'로서의 스님의 한 평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번 개인전이 더욱 뜻깊은 것은 스님이 직접 가려 뽑은 280여점의 수작(水作)이 도록으로 엮여지는 <석정서화집>과 자작·번역사를 모은 <석정시문집>이 정사에 맞춰 발간되는 것. 시문집은 이미 발간한 <선주어록>과 <선주산고>가 한데 모아져 자작시 270편과 번역시 140편이 함께 수록된다. 특히 시문집에는 최관수(간송미술관 연구실장)와 200여명에 달하는 <석정화상평전>이 곁들여져 스님의 삶과 이력을 생생히 조명, 소설과도 같은 감동을 준다.

금강산에서 태어나 3세대 전자를 펴고 불화를 모사하기

시작 6세대 이미 '금강산 신동화기'로 널리 알려진 석정스님은 15세때 송광사에서 석두(石頭)스님을 은사로 대우(大猷)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출가 직후 16세에 당시 가장 평판 높은 불교 김일섭스님을 은사로 불화를 배우기 시작, 제주를 인정받은 스님은 은사를 도와 송광사 사천왕 보수공사, 남사사 관음사 등 불사에 참여한다. 이후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곡성 도림사, 송광사, 풍도사, 운문사, 봉은사 등 수많은 사찰의 불상과 탱화조성 및 보수를 맡아왔으며 지난 1992년 11월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45)

붉은 입에 든 늦봄 향기

月華當戶夜三更 달 꽃 문에 들어 밤은 삼경
(월화당호야삼경)
靜聽松琴漫興長 술거문고 조용히 혼자 흥 길로 인다
(정청송금만흥장)
巖料天明春色暮 어찌 알라, 날 밝아 봄빛 저물지만
(기료천명춘색모)
落花飛入老巖香 늙은 꽃 날아들어 늙은 입술 향기로울 줄
(노화비입노산향)

김광대의 시이다. 원제목은 황화산(黃花山)이란 분이 보내 온 시에 화답한 시이다. 보내 온 시에서는 "물 앞 외로이 선 저 하늘엔, 한 줄기 신선 비탈 소매 가득 향기롭다(庭前獨立心天外 一縷襟風滿袖香)"이라 하였다. 이쪽을 신선의 향기라 미화시킨 대답을 꽃잎이 이 늙은이의 입술로 날아 들어 이 늙은 입술이 향기로워진다 하였으니 그야말로 달관된 시인의 재치이다.

달빛을 달꽃(月華)이라 하였으나 그 빛이 아니라 문에 드는 달의 꽃무리이다. 밤도 깊어 심경이 지나고 있다. 술버림이 술술 풀어 산들거리다. 이것은 자연의 음악이다. 바로 술거문고 소리이다. 여기에 이끌려 깨어나는 흥취가 짙다. 아무리 성정으로 가라 앉힌 세속의 정이라 하지만 이렇듯 신비로운 자연성미마저 잠재우지는 않는다. 이 자연정서가 바로 선미를 느끼게 하는 본연의 감성이 아닐까.

연음악의 거문고이기는 하지만 붉은 내일 아침에는 꽃잎에는 해살하는 알미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붉은 이미 늦어 꽃잎이 짙 것이요. 그 지는 꽃이 내 입가에 내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지는 꽃잎도 늙은이요, 나 또한 늙은이의 입술이지만 이 꽃으로 해서 내 입술은 향기로울 것이다. 전편의 시의 향기를 풀어내는 순간이다.

이렇듯 이 시는 단어 하나 하나가 참신하다. 달꽃이나 술거문고나 늙은 꽃, 늙은 입술의 향기 등이 모두 입상에 서는 흔치 않은 용어이면서 한 편의 시로 융화되면서 전편을 향기롭게 하였다. 모두가 시인으로서의 영감적 시어의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선사의 사물관으로 대경의 모든 사물을 대경으로 놓아 두면서도 한편으로 그 자연을 내에게로 유인하여 즐기는 자세이다. 이 늙은 입술의 향기, 이것은 바로 노스님에게서 나오는 법문의 향기가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전 시 안 내

릴 120여점이 전시된다.

하인두씨 유작展

만다라 그림의 대가였던 서양화가 고 하인두씨의 말년 작품을 볼 수 있는 '하인두 유작전'이 14일부터 4월4일까지 갤러리 서미(02-546-9740)에서 열린다.

하인두씨가 80년대 중반 이후 부병중에 그린 '혼불·빛의 회오리' 연작이 공개되며 이전 작품에 비해 한층 대담하고 현란한 색채와 선이 돋보인다.

현정씨 첫 개인전

현정씨가 불심을 화폭에 담은 첫 개인전 '마음 한 조각을 찾다'를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사동 덕인갤러리(723-7771)에서 갖는다.

현정씨는 전시회에 맞추어 명상시화집 '마음 한 조각을 찾다'를 발간했다.

정묵스님 '연' 수묵전

정묵수묵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정묵스님(수덕사 주부)의 작품전이 오는 20~23일 공평아트센터(02-733-9512~4)에서 열린다.

불교의 상징인 '연(蓮)'을 주제로 한 이번 작품전에는 수묵의 농담과 필선을 빌려 마음의 형상을 '연'으로 표현한 그

만해백일장 전미향씨 '대상'

새 봄 전미향작

몽독한 수저에 파인 시과의
허한 속살은 현참을 입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끝내 불니를 한번 씹어 드시지 못한
채 물이신
할머니의 무덤 위로
순가락 같은 불꽃이 핀다

어머니는 다래나물을 다듬고 계셨다
이제 조금씩 자라는 봄별이
치맛자락 만지작거린다
땅이 녹는 소리를 타고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반백이 넘어버렸다
봄은 세월도 데리고 왔다

절에서 모두 잃어버린 할머니의 이름은
끝이 달은 수저였다

모심스님

음성포교 12년 회향

장애인동기음악회 6월 5일 '고별무대'

"불자음악가 위한 무대확대등 육성 시급"

을 널리 퍼기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호응합니다. 스님은 원단체인 불교방송·TV의 개국으로 불교음악계가 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따라서 음악발표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에 이제 사중 불사와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힌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노래할 때마다 늘 부

처님께 감사드리고 부처님 은혜에 미흡하나마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모심스님은 그동안 개인발표회 등과 12회의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등을 공연해 왔다.

잊지 못할 무대는 인양교도소에서 열린 송년음악회, 8년간 계속된 안양교도소 위문공연에 클래식 성악가들을 대거 동원

시커 큰 호응을 얻었다.

"교계도 기존의 성악가들을 데려만 올게 아니라 내부에서 불자음악가를 키워야 합니다. 자꾸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앞으로 불교음악인들을 위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모심스님. 오는 6월5일 오후 7시부터 리얼엔젤스예술관에서 열리는 화랑기념음악회에는 모심스님 외에 테너 조영수, 이춘기, 소프라노 권영희씨 등과 비로자나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속)

만해백일장 전미향씨 '대상'

새 봄 전미향작

몽독한 수저에 파인 시과의
허한 속살은 현참을 입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끝내 불니를 한번 씹어 드시지 못한
채 물이신
할머니의 무덤 위로
순가락 같은 불꽃이 핀다

어머니는 다래나물을 다듬고 계셨다
이제 조금씩 자라는 봄별이
치맛자락 만지작거린다
땅이 녹는 소리를 타고 어머니의 머리는 이제
반백이 넘어버렸다
봄은 세월도 데리고 왔다

절에서 모두 잃어버린 할머니의 이름은
끝이 달은 수저였다

모심스님

음성포교 12년 회향

장애인동기음악회 6월 5일 '고별무대'

"불자음악가 위한 무대확대등 육성 시급"

을 널리 퍼기 위한 다양한 음악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호응합니다. 스님은 원단체인 불교방송·TV의 개국으로 불교음악계가 보다 많이 발전되었고 따라서 음악발표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에 이제 사중 불사와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힌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노래할 때마다 늘 부

처님께 감사드리고 부처님 은혜에 미흡하나마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모심스님은 그동안 개인발표회 등과 12회의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등을 공연해 왔다.

잊지 못할 무대는 인양교도소에서 열린 송년음악회, 8년간 계속된 안양교도소 위문공연에 클래식 성악가들을 대거 동원

'한국문화예술' 인터넷 소개

문체부 '전자사랑' 홈페이지 25일 개설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인 통신망 인터넷을 타고 전세계로 소개된다.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일 초고속 공공응용서비스 시연 및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전자사랑' 홈페이지를 개통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사랑방은 '문화정보서비스' 전자박물관 '전자미술관' '전자도서관'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질의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최신 멀티미디어 웹(web) 서비스이다.

문화정보서비스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기본 자료 7천건, 설명자료 3천5백건(국·영문), 이미지정보 1만 건 등이 있다. 전자박물관에

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유물·국보·보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1천점이 제공된다. 전자미술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전자도서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 등이 각각 본문·이미지·동영상 등을 통해 소개한다.

앞으로 문체부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한국문화공간종합안내서비스' '3차원 정보서비스' 등의 2·3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자사랑방 인터넷 주소는 [HTTP://NS.MOCS.GO.KR](http://ns.mocs.go.kr) 이다.

불교 성지 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해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송축-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제-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230만원
- 기간: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3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180만원
- 기간: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3월 25일 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형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135만원
- 기간: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30일-6월 28일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무다가야-라지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गर-룸비니-발라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아-시기리아-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145만원

HVECHO ADVENTURE TOURS, LTD.

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대)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형(일정조정 가능)